

죽음의 실체 들여다본 102편 연작시

시집 '죽림 풍장' 펴낸 서애숙 시인
모친 고향 진도서 본 찻감국 착안
첫 시집 이후 16년 걸쳐 탈고
"시의 종착지는 언제나 죽음"



"어린 시절 어머니의 고향 진도 죽림(竹林)에서 봤던 찻감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판 귀퉁이에서 밤 깊은 줄도 모르고 지켜보며 어렴풋이 '죽음'의 실체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년의 때에 각인된 특정한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것이 죽음과 연계된 의식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생에 대한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의 내면은 흰 도화지와 같아서 한번 각인된 장면은 아이의 일생을 지배하기도 한다.

죽음을 소재로 한 시집을 엮어낸 이가 있어 화제다. 서애숙(58·사진) 시인은 최근 102편의 연작시로 이루어진 '죽림 풍장(문학과경계)'을 펴냈다.

풍장(風葬)은 말 그대로 '시신을 노출해 자연히 소멸시키는 장례법'을 일컫는다. 지금까지 '풍장'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시집은 1984년 황동규 시인이 펴낸 작품집이 있다.

서애숙 시인은 "황동규 시인의 시집과 변별이 되도록 유년의 고향이었던 '죽림'의 지명을 넣어 '죽림 풍장'으로 했다"며 "이번 작품집은 2001년 발간한 첫 시집 이후 16년에 걸쳐 천착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시집이 주는 무게와 다르게 시인의 첫인상은 편안해보였다. 삶과 죽음을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이 라고 보기에는 인상이 서글서글했다. 대체로 작품과 작가의 느낌이 닮은 경우가 많은데, 서애숙 시인의 경우는 달랐다. 깊은 내면까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편안해 보이는 얼굴은 타고난 작품을 책으로 묶어 자신의 손을 떠나보낸 데서 연유하는 것인지 몰랐다.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죽음과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의도를 하지 않아도 시의 마지막은 늘 죽음으로 귀착되곤 하니까요."

진도 임회면 죽림(竹林)에서 봤던 찻감국, 국판 때문이었다. 그녀는 "초분이나 풍장(風葬)을 통해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은 무섭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릴 때 우리들은 그 옆에서 철없이 뛰어놀았다"고 덧붙였다.

그녀가 죽음이라는 시에 천착하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올해 85세인 어머니는 무남독녀다. 그 시절에 딸만 하나 있는 집은 흔치 않았는데, 어머니의 집에는 그만한 곡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원래 어머니 형제가 열 명이었고요. 그러나 아홉 명이 죽고, 어머니만 혼자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서애숙 시인은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

이 땀 뚝뚝 떨어뜨려 아프다. 엄마의 아픈 마음은 내 가슴에 그대로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는 소리가 잘 듣고, 복도 잘 쳤다고 한다.

어머니를 떠올리면 죽음이 연상되는 이유다. 한편으로 그녀는 "내게도 3남매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갔다"고 말했다. 시인이 '풍장'이라는 장례를 통해 죽음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이유가 이해된다.

"이 언덕 지나 바다로 가는 길/ 만장이 없어도 좋다/ 꽃상여가 없어도 좋다/ 가는 길 몰라도 좋다/ 햇살에 따른 바람이/ 초분 지푸라기 끝에 매달려/ 하는 가는 길 알린다/ 대나무 우듬지 끝에 걸린 바람에/ 이제야 눈물이 난다"('죽림 풍장 61' 중)

화자의 내면에는 애뜻하고 서러운 장례의식이 깃들여 있다. 망자가 이생의 무게를 짐을 내려놓고 한 줄기 바람처럼 자유로워지길 희망한다. 다시 말해 끊임없는 풍화작용에 의해 죽음이 축제로 승화되기를 꿈꾼다.

시인인 유종인 평론가는 "죽음에 이르러 삶에 대한 시선이 확정되고 성숙됐으니 그 죽음은 살아 있는 죽음인 것이다. 자연의 이법(理法)을 알아가는 주검은 단순히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갱신되어지는 것"이라고 평한다.

아마도 서애숙 시인은 이번 시집 발간을 계기로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잠재돼 있던 '죽음'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것 같다. 이번 시집이 망자의 원을 풀어주는 '찻감국'과 같은 의미를 지닐 것이다.

시인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어르신들과 함께 소리도 하고 시도 읽으면서 그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며 "지금 광신대 성악과에서 노래를 공부하는 것도 그 계획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애숙 시인은 2001년 계간 '문학과 경계'에 '일로 연꽃 방죽에서' 외 4편이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세상 뜨는 일이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등을 펴냈으며 재능시낭송협회 광주지회장을 역임했다. 광주MBC도요볼링대회 챔피언전 우승 등 10여년 간 광주시 불링 대표로도 활약한 바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기생 화중선은 왜 남성중심 사회를 일갈했나

김진송 소설 '화중선을 찾아서'



"뭇 사내들은 내 신발에 입을 맞추라."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사회를 뒤 흔들 기생 화중선의 일갈이다. 1923년 '시사평론'에 실린 기생 화중선의 글 '기생생활이 신성하다면 신성합니다'는 당대 식민지 조선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화중선은 "남성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남성 중심 사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도발적인 내용을 언급했던 것이다.

기생 화중선의 글을 모티브로 소설과 역사를 결합한 형식의 팩션(faction) '화중선을 찾아서'(푸른역사·사진)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저자는 문화 연구와 근현대 역사에 관심을 토대로 '현대성의 형성-서울에 탄소를 허하라', '목수, 화가에게 말을 걸다' 등의 책을 펴낸 '목수'이자 조각가인 김진송 씨.

출판기획, 전시 평론 등 다양한 일을 해왔던 그는 4년 전 강진군 도암면 화정리에 내려와 터를 잡았다. 글을 쓰기 위해 내려왔지만 정작 나무를 깎아 작품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냈다. 최근 롯데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던 그는 다

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팔방미인이다.

저자는 "책을 쓰기 위해 오랫동안 구상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밀려났다가 강진에 내려와서 비로소 완성하게 됐다"며 "기생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당시 지리멸렬한 지식인 군상들의 모습을 통해 전근대적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1920년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는 '시사평론'의 편집장 '김'과 함께 연재소설을 마친 기념으로 명월관을 찾는다. 그곳에서 기생 '화중'을 만나는데, 그녀가 도전적이고 과격적인 글을 썼던 화중선일지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한다.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요소가 가미된 작품은 소설보다 다채롭고 흥미롭게 전개된다. '나'의 여정을 따라가노라면 당대 지식인 사회의 풍경, 기생의 문화사 등을 만나게 된다.

"이야기의 전개 방식 말고 또 하나 이 글을 쓰는 동안 가장 큰 문젯거리는 바로 '나'였다. 소설 속의 화자인 '나'는 당시의 인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현재 글을 쓰는 '나'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저자는 "과거 속의 인물들과 대화하거나 과거 속에서 생각할 때는 식민시기의 인물이지만 이 글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적절한 자료를 찾아 인용하거나 코멘트를 할 때는 그들을 바라보는 현재의 '나'이다"고 덧붙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송년 음악회

23일 '아시아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 무료 공연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크리스마스 와 연말연시를 맞아 23일 오후 7시 송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광주 지역민에게 공연예술을 통한 소통, 문화 향수권 제공 등을 목표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시아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사진)가 연주한다.

연주곡은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흥겹고 감동적인 곡들로 구성돼 있다. 매년 겨울이 오면 떠오르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러시아의 춤'을 비롯해 비발디의

'사계' 등 다양한 음악이 연주될 예정이다.

아울러 영화·드라마 등에서 많이 울려 퍼졌던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 중 2악장 및 '소야곡(Eine kleine Nachtmusik) KV525'도 연주된다.

마지막 무대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연주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문의 062-570-7016/702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함께 울리는 남도풍류 남도국악원 등 3개 단체 20일 공연



강강술래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오는 20일 오후 7시 남도소리유평터에서 국립남도국악원(예술감독 사재성), 진도국립민속예술단(예술감독 김오연)과 송년합동공연 '남도풍류'를 선보인다.

이번 송년합동공연은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여섯 번째로 선보이는 무대다.

국립남도국악원, 전남도립국악단, 진도국립민속예술단 3개 단체가 준비한 공연으로 3개 단체가 합동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 무대는 국립남도국악원이 준비한 남도시나위와 판소리에서 발전한 곡인 '산조합주'를, 두 번째 무대는 남도잡가의 진수인 '육자배기, 신 뱃노래'를 3개 단체가 합동으로 남도가락의 멋과 흥을 선보인다.

세 번째 무대는 전남도립국악단이 준비한 창극 '신 뺨파던, 팔도봉사의 노래'로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팔도봉사들의 흥과 끼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펼쳐진다.

다음으로 진도국립민속예술단의 소리극 '진도 찻감국 중 제석거리'의 무대와,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오고무와 진도북춤, 설장고 놀이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작품화한 '천년의 북소리'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 무대는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준비한 '강강술래'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전통 강강술래의 소리와 신명나는 무용으로 관객들과 함께 신명난 어울림의 한마당을 선사한다. 전석 무료. 문의 061-285-692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